

# 행복한 책 읽기

조란 지브코비치 '책 죽이기' <문이망>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다보니 책이 문제였다. 그동안 하나둘씩 사들이고 선물 받은 책이 상하방 벽면을 기억자 범으로 채우고도 남아 다락에 수북하게 쌓여있었기 때문이다. 거실을 책으로 도배할 생각이 아니라면 과감히 버려야겠어. 책을 잡아 정리했다. 그렇게 버려진 책이 리어가 두 대 분량이었다.



등 외설 수위를 넘나드는 표현 때문에 저자의 의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들은 책이 우리와 함양이 가까운 사이이며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우리가 책을 들고 즐겨 찾는 곳 중 하나가 침대다. 어릴 적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던 부모에 대한 기억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잠들기 직전에 읽은 한 줄의 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한다.

트랜지스터라디오나 필름카메

## 종이책이 완전히 사라질 날이 올까

적인 분위기가 사나워졌다. 책은 인간과 더불어 가장 지적인 종이다. 그런데 찌지 않은 손으로 온 몸을 만진다거나 레인코트 안에 숨겨두고 은밀하게 판매하는 인간에 의해 수난과 망신을 당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폐기처분이라는 명목으로 화살당하기 때문에 책의 입장에서 시니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출판사 사장, 문예대행인, 편집자, 서적상 등 출판 관계자들의 행동을 보면 더 한심하다. 겉으로는 문화 사업인 양 접근을 피우지만 결국은 자본주의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책을 읽다보면 때때로 '말세' 가량을 찢어쳐라 벌린 채 몇 시간 혹은 종일 버티고 있다.' 거나 '도서관을 사창굴'이라고 표현하는

라처럼 획기적인 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점점 힘을 잃어다가 급기야 도태되는 것들이 있다. 저자는 손아귀에 속 들어올 정도로 부피가 작으면서도 영구적인 시디의 탄생을 지켜 보며 종이책의 미래를 걱정했는 지도 모른다.

'책 죽이기'가 처음 세상에 나온 지 십여 년이 지난 지금, 책의 사망을 선언하게 만들었던 시디를 더 획기적인 PDF파일방식으로 진화했으나 종이책이 사라지는 커녕 오히려 더 성황을 이루고 있다. 예전에는 남의 책으로 집을 장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서전이나 온갖 개인 기록물을 인성의 훈장처럼 발간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반면 종이책을 읽는 독자들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책의 입장에서 본다면 침대에 불려 다니던 그 시절이 그리울지도 모르겠다. 비록 무시당하는 마누라같은 취급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정이

1998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자

# 한국문예위 공연예술 지원사업 광주·전남 4년간 고작 한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이 영남권 공연 행사에 치우쳐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4년간 지원 행사가 39건 중 단 한건에 그쳐 지원 사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해자 의원(민주당)이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공연예술활성화 사업이 시작된 후 2013년 현재까지 총 39건 사업 가운데 28건(72%)이 영남권 행사에 편중됐다. 지원받은 예산 규모도 75억 5000만원 가운데 65억원으로 85% 수준이다. 반면 광주·전남의 경우 2013년 지원받은 판페라 '이순신'이 유일하며 사업비는 3000만원에 불과했다.

30억원이 지원된 2010년의 경우 9개 선정 사업 가운데 강원도 대관령음악제를 제외한 8개가 부산국제연극제,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등 영남권 축제였다. 2011년의 경우 제주 탐라문화제 등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영남권 사업이 7건, 22억 5000만원 가운데 14억 5000만원에 달했으며 2012년에는 9건 중 7건(20억원 중 14억)을 차지했다. 2013년의 경우 사업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11건 중 6건, 29억원 중 15억원을 영남권이 지원받았다.

박해자 의원은 "심의 절차의 기준만 만들어 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형평성을 지켜야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 초창기 어떻게 지원 단체가 선정됐는지 관할 기관의 근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각 자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없었다"며 "이후 연속 사업이라는 이유로 영남권에 지원이 집중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명했다. 공연예술단체들의 경우 예산 지원 규모에 비해 공연 실적이 현격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의 공연 횟수와 관람객 수가 타 지역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의 평균

39건 중 28건 예산 85% 영남 편중

광주시립예술단 공연 횟수 최하위권



공연예술사업 지원작인 판페라 '이순신'.

공연 횟수는 18회로 15개 국립·광역 공립 공연 예술단체(총 78개)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광주시는 교향악단, 극극단, 합창단 등 모두 7개 시립예술단체를 운영중이다. 이들 단체가 지난 한해 진행한 공연 횟수(찾아가는 예술단 등 제외)는 모두 125회였다. 단체별 평균 횟수는 18회로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78개 단체의 평균 공연횟수인 52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단체별 관람객 수도 1만2928명으로 전국

■전국 국·공립 공연예술단체 공연현황

구분	조사 단체수	단체별 공연횟수	총 공연횟수	총 관람객수	총운영예산(천원)
1 총북	1	67	67	23,000	1,050,000
2 전남	1	142	142	180,990	3,646,000
3 부산	6	28	169	82,071	5,018,140
4 전북	5	34	171	118,374	5,243,650
5 국립	13	124	1,611	880,871	49,871,167
6 인천	4	68	271	160,553	11,548,120
7 대구	9	46	417	430,370	18,753,740
8 충남	1	73	73	28,230	3,519,080
9 대전	5	58	291	148,534	14,996,690
10 경기	5	52	261	161,584	15,099,340
11 제주	5	40	202	524,007	11,854,030
12 서울	9	18	163	107,430	7,789,950
13 광주	7	18	125	90,496	12,893,000
14 울산	5	14	68	45,932	7,789,950
15 강원	2	4	8	3,900	2,205,260
전체	78	52	4,039	2,986,342	173,404,877

(자료: 박해자 의원실 제공)

## 전남 여성농업인의 역할

31일 '국제세미나'



해의 각국 여성 농업인의 지원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여성농업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가 31일 오후 1시30분 전남여성플라자에 열렸다.

전남여성플라자(원장 최순애·사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전남여성농업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과 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카와테코쿠야 사와노쿠미(일본대학교 교수), 파올라 베르톨리니(이탈리아 모데나 대학교 교수), 엠-라우프 살디(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공간사회연구소 연구원), 정은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씨 등 7명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각국의 여성농업인 지원제도와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문옥희 전남여성플라자 정책연구실장이 한국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과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어 김영란 목포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종철(전남도청 농업정책과), 김명자(한국여성농업인 전남도연합회장), 전양순(생활개선회 전남도연합회장)씨 등이 토론을 벌인다. 해외 참석자들은 세미나 후 강진과 구례를 방문해 체험마을과 여성소기업, 생활협동조합 생산현장 등을 견학한다. 문의 061-260-7322. /이보람기자 boram@

# “여수시민 힐링하러 우리가 갑니다”

'조이아 뮤지션스' 음악회 11월1일 예율마루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성악단체 '조이아 뮤지션스'가 여수시민들을 위한 힐링음악회를 마련한다.

11월 1일 여수 GS칼텍스 예율마루 소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이들의 아홉번째 정기음악회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음악가들'이라는 뜻을 가진 '조이아 뮤지션스'는 지난 2003년 9월 창단해 그동안 다양한 레퍼토리와 연주회로 8차례의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15명의 단원들은 틈틈이 발성과 호흡을 배우고 터득하며 한국 가곡, 성가곡, 오페라, 뮤지컬, 팝송 등 다양

한 장르를 배우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현악앙상블과 함께 한국 가곡 '수선화', '코스모스를 노래함'을 비롯해 오페라 '라 트라 비아타' 중 '축제의노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 이중창', 테너 아리아 '별은 빛나건만' 등 가요와 팝송,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18곡을 선사한다.

조이아 뮤지션스 리더 김진오씨는 "아마추어 음악동호회다 보니 전문 성악인들처럼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없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문의 010-9413-6479.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바른성사! 결혼성사까지...**

(백영숙 이사, 유정선 부원장 출연)

**성사율 호남1위**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서울대학교중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광주서석초등학교교원, 전주고등학교교원]

초혼		재혼	
남	女	남	女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31~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7급~9급)	27~42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교사, 교수	28~49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3세
		'무출산 여성' 희망	28~48세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57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3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전주시 서신동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http://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http://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